일상회복 후 첫 대규모 연등회…10만 연등 물결 '기대'

연등회보존회, 5월19~21일 연등회
5월 20일 동국대 '어울림 마당' 후
흥인지문서 종로 거쳐 조계사까지
5만 명 행렬 동참…10만 연등 켜져
일반시민 선착순 250명도 참여가능
서울시·경찰청 협조 안전대책 마련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연등행사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5월 19~21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성대하게 진행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연등회 일정을 공개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며 약 5만 명이 참가, 10만 연등이 종로를 수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통등전시회

5월 11~2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전통등 전시가 진행된다. 서울 도심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연꽃등, 단체 행렬등, 장엄등 등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또 세종대로에는 가로 연등을 설치, 봉축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사와 우정국로 등 거리에서도 전통등이 전시되며 서울 봉은사에서는 5월 5일~6월 6일 전통등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어울림마당&연등행렬&대동한마당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는 5월 19~21일 개최된다. 연등행렬에 앞서 연등회 노래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를 펼치는 어울림마당이 5월 20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어울림마당 연희 율동프로그램 명칭은 연희누리로, 공모전을 통해 새롭게 선정됐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율동이 진행된다.

어울림마당에 이어 오후 7시부터 60여 개 단체들이 정성껏 만든 수만 개의 행렬등과 장엄등이 흥인지문을 거쳐 종로 일대, 조계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선두 장엄등은 사물등이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등, 목어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생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장엄등과 행렬등도 연등행렬에 참여한다.

원활한 행렬을 위해 종로 거리는 전면 통제된다. 관람객에게는 행렬을 맞이하기에 앞서 15개국 20여 명으로 구성된 '연등회 친구'와 봉은사 연희단, 한풀의 공연이 제공된다.

올해는 참가단체 이외에 시민 문화체험단도 행렬에 함께한다. 대한불교청년회를 통해 선착순 250명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연등행렬에도 동참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연등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연등회는 생방송으로 홈페이지와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연등행렬이 마무리되는 9시 30분부터는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진행된다. 대동한마당은 행렬을 마친 대중과 시민들이 함께 노래와 강강술래 등으로 진행되며 꽃비로 마무리된다.

전통문화마당

전통문화마당 및 공연마당은 5월 21일 정오부터 저녁 6시까지 조계사 앞과 우정국로에서 진행된다.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확대 진행된다. 전통문화마당에는 사찰 햄버거와 같은 사찰 음식 먹거리, 문양으로 만나는 불교 미술 체험, 연등행렬과 예불 등 한국불교 VR체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공평사거리 공연무대에서는 길놀이, 승무, 풍물, 연등회 노래, 음악연주, 국악, 어린이 공연, 북청사자놀음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우정공원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꽃등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연등회는 5월 21일 저녁 7시부터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소규모 연등행렬로 마무리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등회를 즐길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연등회 사무국장 선효 스님은 "서울시와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등회 기간 동안 종무원 등 1000여 명의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 만일의 사태를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축제다.

불기 2567년 연등회 주요행사

행사명		일 정	비 고
봉축 점등식		4월 26일(수) 오후 7시 (점등기간:4월 26일(수) ~ 5월 28일(일))	광화문광장 / 유튜브 생중계
가로연등		4월 26일(수)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광화문광장, 우정공원, 조계사, 봉은사 등 – 장소에 따라 상이함 –
전통등전시회	광화문광장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등간 전시	5월 10일(수)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우정공원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조계사 전통등전시회	5월 11일(목) ~ 5월 28일(일)	
전통등전시회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5월 5일(금) ~ 6월 6일(화)	
어울림마당		5월 20일(토)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5월 20일(토) 오후 7시	흥인지문 ~ 종각
대동한마당		5월 20일(토) 오후 9시30분	종각
전통문화마당 · 공연마당		5월 21일(일) 정오 ~ 오후 6시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5월 21일(일) 오후 7시 ~ 9시	인사동, 조계사 앞길
봉축법요식		5월 27일(토) 오전 10시	조계사 및 전국 사찰
모바일게임 랜턴마스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	

• 연등회 홈페이지 : www.llf.or.kr / www.연등회.kr
• 연등회 SNS : 유튜브 www.youtube.com/lotuslanternfestival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tuslanternfestivalseoul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lotuslanternfestival

불교상담개발원, 불교명상으로 국민 힐링 선도

4월 24일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2개 사업 공개

5월 1일~31일 자살예방 공모전
7월 중 2023생명살림 법회 확대
5월 19일부터 마음케어 '늘봄'
움직임 명상 등 힐링명상 개발

불교를 대표하여 명상을 통한 국민 힐링에 나서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2023년 마음치유 사업을 공개했다. 4월 24일 불교상담개발원이 공개한 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 '몸·마음·쉼'과 마음돌봄 치유 사업 '늘봄'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듬어 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해 진행된다.

자살위험군·유가족 케어 '몸·마음·쉼'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전이다. 공모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을 선정하며, 선정 프로그램에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우수 장학금이 주어진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해 선정된 프로그램 2개와 올해 선정 프로그램 2개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에 총 4개의 프로그램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동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불교만의 특색인 불교명상을 활용하여 마음을 돌아보고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유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는 데 주목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은 지원을 받아 사찰과 불교계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관협력을 통하여 서울 봉은사, 부산 범어사 등 도심 사찰에서 생명살림법회를 열고, 불살생과 생명존중 사상을 알려왔다. 올해도 7월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사찰에서 '2023생명살림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회취약·소외계층 마음돌봄 '늘봄'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소외계층의 마음치유를 위한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인들을 비롯해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관 종사자, 소방관 등이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올해도 5월 19일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늘봄' 프로그램에서는 불교상담개발원이 공공영역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참깨나무' 명상이 활용된다. '참깨나무'는 '참여하기', '깨어있기', '나눔하기', '무르익기' 프로그램의 약자로 한 주에 하나씩 경험하며 총 4주간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여기에 블라인드 움직임 명상, 자기 자신 안아주기 등 세부활동도 진행된다.

사회 각계 맞춤형 마음케어 나선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사회 각계에 맞춤형 마음케어에 적극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사회에서 종교계에 기대하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마음상담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배출한 마음치유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움직임 명상' 등 상월결사에서 주창한 이후 조계종 전반에서 일고 있는 움직이는 마음명상, 행선수행을 통한 마음치유에도 관심을 갖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을 맡으며 그동안 불교상담개발원 차원에서 하지 못했던 영역으로의 진출이 조계종이라는 불교대표종단의 이름으로 가능해졌다. 종단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불교명상을 활용하여 사회기여를 높이겠다. 전문성을 갖고 자살예방, 공공서비스 마음치유를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존중과 같은 불교의 가르침도 함께 전하는 기회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4월 27일 지정예고
18세기 화려한 불전건축 평가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전남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康津 白蓮寺 大雄寶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사진〉

강진 백련사는 고려말 원묘국사 요세 스님(1163~1245)의 결사처(結社處)로서 조선시대에도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사찰이며,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에 중수한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단층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공포의 형식과 초각 등 세부기법이 화려하고, 기둥 상부의 용머리 조각, 천장 상부의 용머리 장식 등은 해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실내를 채운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 등은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이 장식화 되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대웅보전 중수 기록인 〈만덕산 백련사대법당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 등을 통해서 대웅보전의 중수 배경과 불사에 참여한 장인의 계보와 교류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불교사와 건축사를 고찰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요세 스님은 백련사에서 백련결사문을 주도해 신앙결사 운동의 이론적 측면을 완성함으로써 지눌의 수선결사와 함께 대표적인 신앙결사의 축을 이뤘다. 또한 백련사의 승려들은 다산 정약용(1762~1836)과 협업해 〈만덕사지〉를 편찬하는 등 불교와 유교가 서로 교류했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백련사 대웅보전은 화려한 18세기의 건축적 특징과 관련 기록이 풍부하고,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축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 건강 발원하며 '108배'

복지재단, 4월 24일 후원의 밤
300여 불자 108배로 마음 모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4일 난치병 환아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108배 정진을 진행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23회 국내외 난치병 환아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난치병환아 후원의 밤은 2001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 전까지 매해 3000배 정진을 통해 마음을 모아온 재단은 지금까지 총 9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총 2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3000배 정진을 중단하고 연중모연으로 후원을 이어왔다.

이날은 코로나19 이후 첫 정진으로, 조계사에 모인 300여 불자들은 108배와 함께 후원 동참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 시설 종사자와 봉사자, 후원자,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은 '상월결사 108 원력문'에 맞춰 절을 올리고 백혈병, 심장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했다.

이날 108배 정진에 동참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스님은 "작은 몸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난치병 아이들을 위해 아픔을 나누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달라"면서 "오늘 후원의밤을 시작으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 동참과 원력이 우리 모두의 희망과 용기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108배에 앞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올해 23회를 맞은 난치병 어린이돕기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재단에 알려달라. 세상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은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윤석 아동의 어머니 안희선 씨가 참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감동을 전했다. 안희선 씨는 "윤석이를 혼자 키우며 감당할수 없는 치료비로 많은 날을 눈물로 보냈지만, 3년 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의 인연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알려준 재단과 불자님들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까지 난치병 어린이 돕기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모연 금액은 병원법당 및 전국 사찰과 사회복지시설, 라오스 난치병어린이 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거쳐 난치병어린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02)723-5101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임은호 기자

경주문화재硏-동국대 WISE캠, 공동 발굴

4월 28일부터 신라 무덤 조사



2022년 진행된 공동 발굴조사 모습,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WISE캠퍼스가 공동 발굴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간 공동 발굴조사가 올해도 4월 2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와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이영경)가 참여하는 연구소와 대학간 공동발굴조사는 지난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회차를 맞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조사를 위한 기술·행정·예산을 지원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는 고고미술사학 전공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조사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공동발굴조사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 지석묘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무덤군인 경주 쪽샘지구 유적에서 신라 무덤을 매년 공동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공동발굴조사 대상지는 지난 해 경주 쪽샘지구 유적 분포조사로 확인한 신라 돌방무덤과 제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단독 부장곽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쪽샘지구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형태와 용도의 무덤 및 부장곽으로, 신라인의 다양한 장례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성민 기자